

세계화 시대의 고등교육 품질보증 과 대학평가의 국제 동향

오환섭 |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1. 국제적 관심은 고등교육 품질보증이다.

21세기 초입의 사회변화의 주요 트렌드(trends)는 무엇인가? 세계가 하나의 단일시장이 된 세계화의 진전은 개별 국가의 문을 다른 나라에 열어 주지 않을 수 없는 개방화를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개방화 추세는 글로벌 경쟁력 심화로 귀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세계화·개방화·지식기반 경제의 심화 등의 사회변화는 전통적인 대학의 사명과 기능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의 질적 발전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중요시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대학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관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왜냐하면 대학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문화 번식을 위한 '학문탐구'와 창의적이고 지도자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본질적 사명으로 하

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학이 이러한 본질적 사명과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냐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현실적으로 입학자원 부족의 시대에 개별 대학차원에서도 그 존립을 위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사안이다.

고등교육 수요자들로부터 외면 당하지 않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학의 내부 자체평가를 통하여 질 관리 노력을 해야 하고, 그 품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외부의 제3자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여론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과 『OECD/UNESCO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학 자체평가와 외부 제3자 외부 평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에 따른 주요국가의 대학평가체제 정비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비추어 나름대로 우리나라 대학평가 체제 정비의 과제를 결론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ENQA 대학 자체평가와 외부 제3자 평가의 지침을 보면

ENQA 보고서는 Bologna process Bergen 회의(2005. 5. 9~20)에서 EU국가 교육부장관들이 채택한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 2005)과 『OECD/UNESCO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이다

여기서 양질의 대학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대학 자체평가의 내부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대학들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과 학위수여 기준을 정해야 하고, 그 품질 보장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강구하고 있는지, 대학들은 자체노력을 통하여 질 관리의 중요성과 질 보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문화적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품질 보장을 위한 정책과 절차가 공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내부 점검 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이상의 대학 자체평가의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학위수여, 학생평가, 교수진의 질, 학습자원과 학생 지원체제, 학습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주요 원칙과 외부 제3자 평가기구의 품질보증 활동의 효율성, 활동 범

위, 자원, 사명, 독립성, 외적 질 보증의 준거와 과정, 절차적 책무성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 제3자 평가기구에 대한 지침에서는 ① 품질보증을 위한 평가방법 및 절차적 사항으로 자체평가와 연계성이 있는 외부 제3자 품질보증 평가 주요 항목의 선정, ② 전문가 집단에 의한 외부 평가와 현지 방문에 의한 확인, ③ 외부 제3자 평가위원의 검토의견·권고사항·기타 공식적 견해를 포함하는 보고서 출판, ④ 동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관련 후속 조치 등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 Bologna process Bergen 회의에서 채택된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은 2007년 London 회의에서 재확인되었다. 2009년 Bologna process 에서 EU국가들은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에 입각하여 전통적으로 평가를 해 오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평가체제를 재정비하는가 하면, 2000년대에 평가를 도입한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에 따라 평가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외부 제3자 평가인증기구를 ENQA에 등록하는 등 국가 간 평가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과 『OECD/ UNESCO 지침』의 외부 제3자 평가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침은 큰 틀에서 민간평가기구에 대한 검증의 기본 골격을 설정하는데 유효할 것이다. 이에 민간 평가기구 지정을 법제화한 미국 연방정부(USDE)의 민간평가기구의 지정관

련 법규와 일본의 문부성이 평가기구를 지정하는 학교법의 관련 내용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대학평가제도에서 정비해야 할 과제

EU국가의 'Bologna process' 추진과정에서 채택된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 「OECD/ UNESCO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 채택을 계기로 많은 국가들이 고등교육 품질보증을 위한 기제로 대학평가체제를 정비하거나, 심지어 새롭게 도입하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출범한 우리나라 새 정부도 앞에서 살펴 본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공급자인 대학의 자율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내부 평가체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의 고등교육 품질보증을 위한 대학평가 체제 재정비의 과제를 결론삼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의 질의 평가가 필요하다. 더 이상 순위평가와 서열화는 안 된다. 대학의 거의 모든 조직과 시설 설비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 70여 개국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질 관리와 품질보증의 수단으로 비록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대학평가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일이다.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글로벌 대학 경쟁력을 지닌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우리를 추월한 중국 역시 대학평가를 기제로 하는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자율적으로 자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이 요청된다.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과 「OECD/UNESCO 지침」의 국제적 보급을 계기로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은 국제적 추세이다. 또한 경쟁력 있는 대학, 특성화된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걸음은 대학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에 맞는 방향설정을 위한 자기점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셋째, 대학평가의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신뢰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마다 처한 상황과 관심, 그리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대학평가의 획일성에 대한 비판이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계화 시대의 고등교육의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대학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학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는 최선의 평가대안을 찾는 일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도 입되는 정보공시제를 대학평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학의 설립목적, 규모, 지역별 소재지, 미래비전 등의 특성을 타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 평가판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평가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넷째, 최근 늘어나는 민간평가기구가 본래의 목적에 맞는 평가를 타당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전문경험이 있는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가 과소평가 되는 경우가 있는

가 하면, 별다른 평가 경험도 없는 민간평가기구에 대한 검증 절차도 없이 평가를 맡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섯째, 평가는 대학의 거울이다. 가중치가 큰 것은 큰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고 작은 것은 작은 거울에 비춰보는 것일 것이다. 평가항목이라는 여러 개의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평가기관과 종류에 따라 오목거울 볼록거울, 평면거울에 우리대학의 모습을 비춰보고 다듬고 키워가는 것이 평가일 것이다. ■

필·자·소·개

오환섭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력사항으로는 한국창업보육센터 협의회 부회장, 경기지역 창업보육센터 협의회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 표창장 수상 등이 있으며, 다수의 역·저서가 있다.